두 달 만에 '골맛' 손흥민의 포효

손흥민이 3일(한국시간)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3~24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을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크리스털 팰리스 전서 승리 쐐기골… 시즌 13호포
MOM 선정·팀내 최고 평점… 감독 "주장이 해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약 두 달 만에 골 맛을 보며 소속팀 토트넘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소속팀으로 돌아간 지 약 한 달 만의 골맛이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3~24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팀이 2-1로 앞선 후반 43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쐐기골을 터뜨렸다. 시즌 손흥민의 13호 골이다.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17골)에 뒤이은 EPL 득점랭킹 6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올해 1월 1일 새벽 열린 본머스와의 20라운드에서 12호 골을 터뜨린 뒤 약 두 달 만에 골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다.

본머스전 이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3경기를 비웠던 손흥민은 우리나라가 4강에서 탈락한 뒤 복귀한 지난달 11일 브라이턴과 24라운드에선 후반 교체 출전해 어시스트를 작성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대표팀 후배인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프턴과의 25라운드엔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던 그는 첼시와 26라운드가 리그컵 일정으로 연기되면서 2주 만에 나선 경기에서 마침내 골을 추가했다.

리그에서 도움 6개를 포함해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19개로 늘어 하나만 추가하면 20개를 돌파하게 된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크리스털 팰리스를 3-1로 제압하고 승점 50을 쌓아 EPL 5위를 지켰다. 이날 루턴을 3-2로 따돌린 4위 애스턴 빌라(승점 55)와는 여전히 승점 5 차이이며,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다. 리그 4위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진출 마지노선이다.

브라질 출신의 히샤를리송이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워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했다. 티모 베르너,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뒤를 받쳤다.

토트넘은 전반 18분 절호의 선제골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이 자기 진영 경합에서 흐른 공을 절묘한 스루패스로 연결하면서 베르너가 단독 드리블을 시작했고, 페널티 지역 중앙까지 달려 들어가 샘 존스톤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맞았으나 슈팅이 존스톤 쪽으로 향하며 득점이 불발됐다.

토트넘은 전반 볼 점유율을 80% 넘게 기록했지만 득점 없이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야 했다. 후반 9분엔 손흥민의 골대 불운까지 있었다.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낸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로 슈팅했으나 골포스트 오른쪽 아랫부분을 맞힌 뒤 나오고 말았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후반 14분 토트넘은 에베레치 에제에게 프리킥 선제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18분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브레넌 존슨으로 교체한 토트넘은 후반 32분 존슨이 발판을 놓은 동점 골로 역전의 신호탄을 쐈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와 경합을 이겨낸 존슨이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 보낸 낮은 크로스를 베르너가 달려들며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올해 1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합류한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처음 넣은 골이다.

이어 후반 35분엔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매디슨의 크로스를 골대 앞에서 머리로 받아 넣으며 토트넘이 전세를 뒤집었다. 그리고 후반 43분엔 손흥민이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존슨이 패스를 찔러주자 손흥민이 곧장 특유의 돌파를 했고, 약 35m를 내달린 뒤 페널티 아크에서 오른발로 쐐기포를 터뜨렸다. 손흥민은 팀 승리를 확정지은 후반 45분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데인 스칼릿으로 교체돼 그라운드 밖으로 나왔다.

손흥민은 경기 후 최우수선수(MOM)에 선정됐다. 또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팀 내 최고인 평점 8.1점을 받았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BBC와 인터뷰에서 "리더가 필요했던 순간 마지막 3번째 골이 나왔다"며 "(주장이) 해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자격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손흥민은 당신이 골을 원할 때 넣어주는 바로 그런 선수"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피겨 샛별' 서민규 금메달 쾌거

J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최초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샛별' 서민규(사진·15·서울 경신고 입학예정)가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민규는 2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45점, 예술점수(PCS) 76.72점, 합계 150.17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80.58점을 합한 최종 총점 230.75점으로 2위 나카타 리오(일본·229.31점)를 1.44점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아담 하가라(슬로바키아·225.61점)가 받았다.

우리나라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시상대에 오른 건 처음이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건 2006년 김연아(은퇴) 이후 18년 만이다.

우리나라 피겨는 남녀 성별에 따라 성장세가 갈렸다. 여자 싱글은 유영·김예림·신지아 등 우수 선수들이 쉼없이 배출됐지만 남자 싱글은 정체된 경향이 짙었다. 휘문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차준환이 10년 가까이 독주를 이어갈 정도였다.

우리나라 남자 싱글의 간판으로 성장한 차준환(고려대)조차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다만 피겨 남자 싱글 선수들은 대부분 20대 이후 전성기를 보이기 때문에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의 위상은 시니어 대회보다 떨어진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는 여자 싱글과는 차이가 있다.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서민규는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며 기본 점수 9.30점과 수행점수(GOE) 1.37점을 챙겼다. 이어 시도한 트리플 악셀 단독 점프는 도약이 흔들리면서 1회전인 싱글 점프로 처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서민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트리플 루프를 클린 처리했다.

'킹' 제임스 NBA 사상 최초 정규리그 4만 득점

미국 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오른쪽)가 3일 덴버 너기츠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마크를 뚫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4만 득점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LA 레이커스 소속인 제임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NBA 정규리그 덴버 너기츠와 홈 경기에서 2쿼터 초반까지 9점을 넣어 NBA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4만 득점을 돌파했다.

이 경기 전까지 3만9991점을 넣어 전인미답의 4만 득점 돌파에 불과 9점을 남겨놨던 제임스는 2쿼터 1분21초 만에 레이업 득점으로 4만 득점을 채웠다. 제임스는 최근 4경기에서 30점-28점-34점-31점을 올리는 등 득점 감각을 뽐냈기 때문에 이날 대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제임스는 지난해 2월 8일 오클라호마시티전을 통해 카림 압둘 자바가 보유한 정규리그 최다득점 기록(3만8387점)를 넘어섰고, 올해 1년 여 만에 4만 득점고지까지 밟았다. 1946년 출범한 NBA에서는 3만 득점을 넘긴 선수도 제임스와 압둘 자바를 포함해 7명이 전부다. 이 중 현역 선수는 제임스가 유일하다.

2003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된 제임스는 이 경기 전까지 이번 시즌 평균 25.3점·7.1리바운드·7.9어시스트로 나이를 잊고 톱 클래스다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